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 | ‘식탁공동체’, ‘생명공동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농장 주인의 신중한 기다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자기 밭밭에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일꾼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중한 지시를 내립니다. 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초대받은 25번째 농민 주일입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이며, 매일 식탁을 차리고 먹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한 끼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데 1~2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의 준비 시간보다 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식탁이 준비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식탁이 존재하기 위해서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여 년에 달하는 농민들의 기다린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홀로 남겨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은 식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보다는 맛과 효율만 따지게 되고,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성체)을 나누는 식탁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나누기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성체성사를 나의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당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우리의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식탁을 맞이할 때마다 식탁이 있도록 노력한 모든 이들, 긴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농작물을 길러낸 농민부터 식탁을 차려주신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있는 것입니다. 식탁 안에서 도시와 농촌이 만나고, 도시민과 농민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25년 동안 지속해온 ‘우리농촌살리기운동’입니다.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식탁이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이 땅에 ‘생명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길 수 있다.”**  
(마태 13,24)

씨앗의 꿈이 알곡으로 차오르는 하느님 나라. 뿌리는 자의 희망과 뿌려진 자의 간절함이 만나 허기진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양식이 됩니다. 한 소녀가 알곡으로 가득 채워진 넓은 보리밭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온몸을 흔들며 성장한 보리밭의 모습이 하느님 나라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